특집논문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유형별 관련 요인 탐색*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남기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는 귀농·귀촌인의 개인특성과 귀농·귀촌 과정특성이 그들의 경제활동유형(전업, 겸업, 비농업, 무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의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 추적조사 1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고, 통계분석에는 이항로짓모형과 다항로짓모형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몇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귀농·귀촌인이 젊을수록 비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에 많이 참석한다. 둘째, 남성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참여가 여성보다 활발하며, 분야별로 남성은 농업분야 중심 여성은 비농업분야 중심으로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하다. 셋째, 귀농·귀촌 연차가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참석이 활발하다. 넷째, 귀농·귀촌 동기에 따라 경제활동 유형에 차이가 있는데, 특히 실업을 이유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농업종사가 많다. 다섯째, 농촌 출신의 고향 귀농·귀촌인(U턴형)의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다. 여섯째, 귀농·귀촌전 직업에 따라 경제활동유형에 차이가 있는데, 특히 관리직, 전문직, 자영업자 출신 귀농·귀촌인은 비농업분야 종사를 많이 한다. 일곱째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여부 및 그 유형은 학력, 귀농·귀촌 준비기간, 동거가족(배우자, 자녀)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후속연구로 귀농·귀촌 전 직업과 준비, 그리고 경제적 여건 관련 변인의 정교한 보완 분석을 제안하였다.

* 이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번호:PJ009983) 지원되었고, 2015년 한국농촌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후 수정·보완되었음.

** 교신저자

*** 공동저자

주제어: 귀농·귀촌인, 경제활동유형, 전업농, 겸업농

Ⅰ. 서론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활성화는 국가적 경제위기와 맞물려 발생하였다. 1990년대 IMF 위기로 인해 발생한 우리 사회의 1차 귀농·귀촌 붐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경제위기에 또 한 차례 일고 있다. 두 번째 귀농·귀촌은 베이비부머의 은퇴라는 시기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이다.

최근의 이러한 귀농·귀촌인의 증가에는 정부 정책 역시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발표된 '귀농·귀촌 종합대책'(농림수산식품부, 2009)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부 사업들은 많은 도시민들에게 또 다른 삶의 대안으로 귀농·귀촌을 선택하게 한 측면이 있다. 정부에서 귀농·귀촌 지원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주택, 고용, 환경 등의 다양한 문제의 완화·해결도 있지만, 농정 측면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과소화·고령화되어 있는 농업·농촌에 신규 영농인력, 지역개발의 주체로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인들은 실제 농업·농촌 현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듯 하다. 적지 않은 농업·농촌 관련 각종 우수·혁신이 귀농·귀촌인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한 예로 농림수산식품부(2012) 조사에 따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81개 가운데 72.6%(204개)가 귀농·귀촌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상진(2012:34)의 조사에 따르면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도 귀농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귀농·귀촌인들은 도

시에서의 직업 경험을 살려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체험 등 농업의 6차 산업화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농업·농촌의 혁신적 인적자원일 뿐 아니라, 그들이 도시에서 맺었던 사회적 관계를 가져오기에 그만큼 지역사회의 사회적 학습 역량을 증대시킨다(김정섭·성주인·마상진, 2012: 16). 또한 도시에서 축적한 경제 자본을 가져오고, 토지·주택 구매와 일상적 소비 생활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자금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근 김경덕·홍준표·임지은(2012: 50-51)의 연구에 의하면 귀농·귀촌인 1명으로 인해 농어촌에서 2,195만원의 총생산이 증가(도시에서 2,088만원 감소)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지역 총생산이 107만원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귀농·귀촌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귀농·귀촌인들이 이렇게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지만, 막상 이들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귀농·귀촌에 대한 국가 통계가 2012년에서야 정식으로 집계되기 시작했다. 여러 연구들이 2010년을 전후로 수행되었지만,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적응이라는 일반적 주제를 넘어, 누가 농업에 종사하는지, 또는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실태와 관련한 조사나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1]들이 얼마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활동 유형별로 관련요인을 분석하여 농업 종사자와 타분야 종사자의 다름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개인특성과 과정특성이 경제활동유형(전업, 겸업, 비농업, 무직)과 어떤 관련성

1)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을 농촌(읍·면)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함. 귀농인은 이들 중 농업에 종사(전업, 겸업)하는 사람을, 귀촌인은 귀농인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함.

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즉 어떤 사람들이 영농에 전업으로 또는 겸업으로 종사하고,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분석

1. 귀농·귀촌인의 특성과 경제활동 실태

귀농·귀촌인들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기존 농업인들에 비해 혁신적 인적자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귀농·귀촌인의 연령은 기존 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이다. 마상진(2012: 31)이 농업총조사(통계청 2010) 및 농림수산식품부(2011)의 행정자료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 농업인(농가경영주)의 60대 이상이 61.8%인 반면, 귀농·귀촌인 중에는 60대 이상이 23.5%에 지나지 않았다. 학력을 보면 기존 농업인은 중졸이하가 64.5%이고, 대졸이상이 1.3%였는데, 귀농·귀촌인은 중졸이하가 13.8%, 대졸이상이 60.6%였다. 귀농·귀촌인의 전직(前職)으로 사무기술직이, 자영업 등이 많고, 이 밖에 기능/숙련공, 전문직, 판매/서비스 직 등이 있는데, 귀농이냐 귀촌이냐에 따라 직업분포의 큰 차이는 없지만, 귀촌인 중에 전문직 종사자, 귀농인중에 기능/숙련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보고 하였다.

농업을 목적으로 한 농촌 이주를 귀농, 농업활동 외 경제·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한 이주를 귀촌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들이 농촌현장에서 어떠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는 다를 수 있다. 귀농과 귀촌이 분리되어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의 3년 자료를 보면 대체로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된다<표 1>. 귀촌자일지라도 시간이 지나

면서, 기타 분야 일자리 등의 제한 그리고 농업이 주산업인 농촌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마상진 등, 2015).

〈표 1〉 귀농·귀촌인구 동향(2012~2014)

구분	2012	2013	2014	합계
귀농	11,220	10,923	11,144	33,287
귀촌	15,788	21,501	33,442	70,731
전체	27,008	32,424	44,586	104,018

자료: 통계청. 각년도.

귀농·귀촌인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일부 연구를 보면 적지 않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영농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마상진(2012: 34)이 후계농업경영인을 일반 후계자와 귀농·귀촌 후계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후계자 중에 58.6%가 귀농·귀촌인이었으며, 일반 후계자의 대부분(92.1%)은 전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귀농·귀촌 후계자는 35.1%가 비농업분야에도 종사하며, 귀농·귀촌 후계자의 농외소득이 일반 후계자보다 많다고 보고하였다. 경지면적 1만평이상의 대규모 농가 비중 역시 귀농·귀촌 후계자가 오히려 일반 후계자보다 크다고 하였다. 유학열(2011)은 충남 귀농·귀촌인의 영농종사 및 농외 활동 등에 따라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전업귀농형이 15.7%, 은퇴귀농형이 18.6%, 농촌지향형이 40.0%, 노후휴향형이 11.4%, 도시출퇴근형이 5.7%였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섭(2014)은 기존 귀농·귀촌연구의 면담자료 분석을 토대로 귀농·귀촌인들의 경제활동을 농업, 농산물가공 및 농촌관광, 농업과 무관한 직종에서의 근로로 나누어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농업 활동으로 친환

경농업 및 직거래 빈도가 높고, 농산물 가공 및 농촌 관광이나 비농업분야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여성의 참여가 많은데 , 특히 비농업분야 경제활동은 방과후학교, 도서관, 요양보호사, 다문화가정 지도사 등과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서의 유급 활동과 노동, 상점 점원 등과 같이 전적으로 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구분가능 하다고 하였다.

박시현·최용욱(2014)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귀농·귀촌인 중에 전업농이 29.9%, 겸업농이 47%, 농업 외 경제활동 종사자가 9.9%, 무직/기타 가 13.3%이었다. 전업농의 영농규모가 3,595평, 연간 농업소득은 3,240만원, 겸업농은 영농규모가 2,152평에 농업소득 1,260만원, 농업외 소득 2,610만원, 농업외 경제활동 종사자는 연간소득이 2,530만원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귀농·귀촌인들이 대부분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 비 농업분야에도 종사하게 되는데 그 분야로는 표 2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표 2〉 귀농·귀촌인의 농업 외 경제 활동

지역	농업 외 경제 활동
서천	사무직, 바리스타강사, 조경기능사, 영양사, 재가방문요양, 장류가공업, 농가맛집, 온라인판매
고창	건축업, 인터넷쇼핑몰, 유통업, 프리랜서, 세탁업, 전기업, 시간제 판매직, 자영업
순창	유통업, 사무장, 친환경학교급식, 일용직
강진	건축업, 천연염색, 원예, 음식점
상주	건축업, 카페운영, 강사, 농촌지역 활동가, 장류가공업, 사무장, 목공강사

자료: 박시현·최용욱 (2014)

2.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관련 요인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관련 요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동안 대다수 연구가 귀농·귀촌 동기와 과정(신윤철·배성의·김동섭·윤준상, 1998; 강대구, 2007; 김성학·서정원, 2014)에 초점을 맞추거나, 귀농·귀촌에 따른 일반적인 농촌 적응과 관련된 연구(김형용, 1998; 조록환, 1998; 박공주·윤순덕·강경하, 2006; 박공주·김양희·박정윤, 2007; 김철규·이해진·김기홍·박민수, 2011; 송인하 2013)가 대부분으로, 그들이 혁신적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실제 정착이후 어떤 경제활동하고 이에 어떤 요인이 관계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다.

강대구(2006: 48-49)는 귀농자를 중심으로 귀농경로유형별로 현재의 영농정착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는 성별, 학력, 귀농전 직업, 귀농전 농업경험, 부모님 농업여부, 농업계 학교 출신 여부, 농업교육 이수정도 등의 변인에 따른 귀농경로유형(U형, J형, I형)을 보고, 귀농경로유형별로 영농작목, 농업소득유형(자가소비, 판매, 농외소득활동), 영농역량, 농업소득, 생활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성별, 연령, 귀농전 농사경험, 학력에 따라 귀농경로유형이 차이가 있고, 귀농경로유형에 따라 현재의 영농실태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유학열(2011: 23-25)은 충남 귀농·귀촌인의 연구에서 귀농·귀촌 유형이 연령, 농촌 고향여부, 귀농준비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전업귀농형은 비교적 젊은 층이 많고, 은퇴귀농형은 연령대가 높은 차이가 있으며,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와 농촌·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귀농·귀촌한 농촌지향형은 비교적 젊고, 도시 출생자가 많았다.

한편 중·고령자의 취업과 관련한 비농업분야의 연구는 귀농·귀촌인이 다수가 중·고령자란 관점에서 일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박경숙(2003)은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에서 남성, 일자리 관련

특성 중 과거 종사업종, 과거 종사상지위가 영향을 미치며 재정 관련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 중 자녀동거, 소득, 사회보험 수혜 여부가 취업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성지미·안주엽(2006: 39)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50세 이상 75세 미만 중고령자 표본 대상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에서 연령, 성별, 혼인여부, 교육수준, 건강, 소득원, 자산 및 부채, 그리고 전직업 특성이 영향을 주고, 일자리를 갖고 있는 중고령자의 삶에 대한 만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유현정(2007)은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자녀의 경제지원 여부, 취미시간 등의 변인에 따라 경제활동 중단 또는 지속에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전 직업이 현재의 직업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엄동욱(2008: 35)은 국민노후보장패널 분석을 통한 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 연구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취업률이 높고, 고연령 및 고학력일수록 취업률이 낮으며 그밖에 건강(육체적 건강은 취업활동의 제약요인, 심리적 건강상태는 취업촉진요인으로 작용), 가구소득(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하지 않음)과 소비(클수록 취업)에 따라 취업여부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송일호·박명호(2012)의 한국고령자패널조사를 활용한 취업결정요인 분석에서 연령, 현재의 소득, 부채 상황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50~65세미만 중년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지은정(2008)은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진보설을 적용하여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하지 않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고졸 이상 학력 남성의 노후 경제활동참가가 높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이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를 장기적·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인 조사집단을 구축하고 이들에 대하여 2014년 실시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2]. 이 자료는 총 1,019명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3] 작성된 것으로 귀농·귀촌인의 개인특성과 더불어 귀농·귀촌 과정, 현재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활동, 귀농·귀촌에 대한 자가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사대상자의 주요 일반 특성으로 귀농·귀촌 전 거주지를 보면, 경기·강원권이 58.6%, 경상권 20.9%, 전라권 8.0%, 충청권 6.8%였다. 현 거주지(귀농·귀촌장소)는 경상권이 37.6%, 전라권 28.3%, 충청권 19.1%, 경기·강원권 15.0%였다. 남성이 81.0%였고, 학력별로는 대졸이 43.8%, 고졸이 28.3%, 전문대졸이 12.7%, 대학원졸 이상이 8.5%, 중졸 이하가 6.5%이다. 연령대별로는 51～60세가 42.9%, 41～50세가 28.5%, 61세 이상이 20.3%, 40세 이하가 8.3%이다.

2.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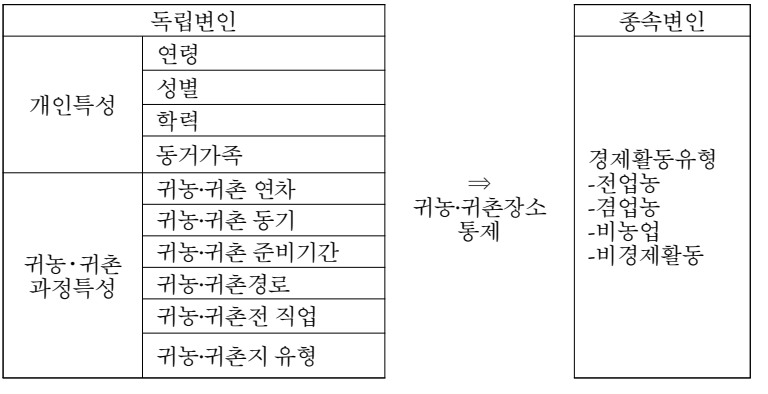
---

2) 이 조사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동일 집단에 대해 이뤄지며, 1차 년도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12월에 걸쳐 수집되었음. 표집은 국가의 2009년~2013년 지역별 귀농·귀촌가구 분포를 고려하여 이뤄졌음.

3) 표집은 가구 기준으로 하였지만,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응답은 개인수준에서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관련 요인 분석을 위해 그림 1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자료에서의 자료 획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개인특성으로 연령, 성별, 학력, 동거가족, 그리고 귀농·귀촌과정 특성으로 귀농·귀촌 연차, 귀농·귀촌 동기,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경로, 귀농·귀촌전 직업, 귀농·귀촌지 유형 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경제활동유형을 전업농(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 겸업농(농업 및 농외 활동을 겸함), 비농업(농업이외 타분야 경제활동에만 종사) 등의 경제활동종사의 세가지 유형과 비경제활동(은퇴 또는 무직)[4]등 네가지로 나누었다.

〈그림 1〉 분석 모형



3. 분석방법

4) 비경제활동인구는 엄밀하게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즉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즉 가사에 종사하는 주부, 학생, 연로자와 장애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연구에서는 '은퇴 또는 무직(텃밭 정도의 취미 농업 종사 포함)'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함.

귀농·귀촌인의 개인특성, 귀농·귀촌 과정특성에 따른 경제활동유형에 대한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값을 토대로 카이스퀘어 분석을 하였다. 경제활동 관련요인 분석은 먼저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여부(비경제활동=0, 경제활동=1)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을 이항로짓모형(logit model)으로, 구체적인 경제활동유형(비경제활동=0, 전업농=1, 겸업농=2, 비농업분야=3)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은 다항로짓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으로 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동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업종사여부(비농업분야=0, 농업분야=1)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을 이항로짓모형, 구체적인 농업종사유형(비농업분야=0, 전업농=1, 겸업농=2)에 대한 관련 요인분석은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항로짓모형과 다항로짓모형 분석의 투입변인은 다음과 같은 조작과정을 거쳤다. 먼저 성별은 더미변인화 하여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은 1로 하였다. 가족동거자는 배우자, 자녀는 없는 경우를 0, 있는 경우를 1로 하였다. 교육연수는 학력 응답결과를 연속변인로 전환[5]한 값을 사용하였다. 귀농·귀촌 연차는 2014년에서 귀농·귀촌연도를 뺀 값을 사용하였다. 귀농·귀촌 동기의 경우 아홉가지 응답사례(도시의 높은 생활비, 실업, 도시에 대한 회의, 농업종사, 건강상 이유, 은퇴후 여가, 전원생활, 생태공동체 추구, 새일자리)에 대하여 응답한 경우는 1,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였다. 귀농·귀촌경로의 경우 도시출생 귀농·귀촌인을 기준으로 농촌출신 고향 귀농·귀촌인, 농촌출신 타지역 귀농·귀촌인을 각각 더미변인화 하였다. 귀농·귀촌 준비기간의 경우 준비기간이 없음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

5) 학력 응답결과의 교육연수 전환 기준: 초등졸=6,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대졸이상=18

만, 3년 이상 등을 각각 더미변인화 하였다. 귀농·귀촌전 직업은 9개 직업군사례(행정·경영·관리자, 전문직, 예술가,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단순노동자, 자영업자, 군인)에 대해 응답한 경우는 1,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였다. 귀농·귀촌지역의 경우 경기·인천 지역을 기준으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을 각각 더미변인화 하였다. 귀농·귀촌지 유형의 경우 시·군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면소재지, 면소재지인근, 원격지 등을 각각 더미변인화 하였다. 조사 분석에 활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초분석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은 응답자중 87.7%였다. 이중 전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43.5%, 겸업농은 31.5%, 비농업분야 종사자는 12.7%였다. 평균 연령은 53.1세 였고, 교육연수는 14.3년이었다. 귀농·귀촌 연차는 평균 3.8년이었다. 여성 귀농·귀촌인의 비율은 19%였다. 귀농·귀촌 동기로 '도시에서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가 8.3%, '실업이나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9.3%,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24.6%, '농사일이 좋아서' 18.2%, '자신과 가족의 건강 때문에' 18.7%,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24.8%,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32.1%, '생태·공동체 등의 가치추구를 위해' 18.4%, '새 일자리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위해' 21.3% 등 이었다. 귀농·귀촌경로로 농촌출신 고향 귀농·

귀촌은 30.5%, 농촌출신 타지역 귀농·귀촌은 29.3%, 도시출신 귀농·귀촌은 40.2% 였다. 귀농·귀촌 준비와 관련하여 준비없음은 9.6%, 6개월 미만 준비는 14.0%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1.2%, 1년 이상 2년 미만은 19.2%,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1%, 3년 이상은 21.9%였다. 귀농·귀촌전 직업으로 행정·경영·관리자 11.3%, 전문직 5.1%, 예술가 1.8%, 사무직 17.8%, 판매서비스직 7.5%, 기능직 10.4%, 단순노동자 2.6%, 자영업자 26.4%, 군인 1.8% 등이었다. 귀농·귀촌지역의 지리적 유형으로 시·군청 소재지내는 15.0%, 면사무소 소재지는 18.8%, 소재지 인접지역 35.9%, 원격지역 30.2% 등이었다.

〈표 3〉 분석에 투입된 변인들의 기초통계치

변인			통계치
종속변인	경제활동	전업농	43.5%
		겸업농	31.5%
		비농업	12.7%
	비경제활동		12.3%
통제변인	귀농·귀촌장소	경기인천 (기준)	9.2%
		강원(=1)	5.2%
		충북(=1)	9.8%
		충남(=1)	12.0%
		전북(=1)	14.5%
		전남(=1)	12.5%
		경북(=1)	26.6%
		경남(=1)	10.2%
독립변인	연령(세)		53.1
	성별	남(기준)	81.5%
		여(=1)	18.5%
	학력(교육연수)		14.3
	가족동거자	배우자동거	76.8%
		자녀동거	40.0%
	귀농·귀촌 연차(년)		3.8
	귀농·귀촌 동기	도시의 높은 생활비	8.3%

		실업	9.3%
		도시에 대한 회의	24.6%
		농업종사	18.2%
		건강상 이유	18.7%
		은퇴후 여가	24.8%
		전원생활	32.1%
		생태공동체 추구	18.4%
		새일자리	21.3%
	귀농·귀촌경로	고향 귀농·귀촌(=1)	30.5%
		타지역 귀농·귀촌(=1)	29.3%
		도시출생 귀농·귀촌(기준)	40.2%
	귀농·귀촌 준비기간	준비기간없음(기준)	9.6%
		6개월 미만(=1)	14.0%
		6~1년미만(=1)	21.2%
		1~2년미만(=1)	19.2%
		2~3년미만(=1)	14.1%
		3년이상(=1)	21.9%
	귀농·귀촌전 직업	행정·경영·관리자	11.3%
		전문직	5.1%
		예술가	1.8%
		사무직	17.8%
		판매서비스직	7.5%
		기능직	10.4%
		단순노동자	2.6%
		자영업자	26.4%
		군인	1.8%
	귀농·귀촌지 유형	시·군청 소재지내(기준)	15.0%
		면사무소 소재지(=1)	18.8%
		소재지 인접지역(=1)	35.9%
		원격지역(=1)	30.2%

표본수=1004 (15개 사례가 통계분석모형 투입과정에 제외)

2. 개인특성·귀농·귀촌과정특성별 경제활동유형 분포

연령, 성별, 학력, 동거가족, 귀농·귀촌 연차, 귀농·귀촌 동기, 귀농·귀촌 경로, 귀농·귀촌전 직업, 귀농·귀촌지 유형별 경제활동유형 분포를 보기 위해 카이스퀘어분석을 실시하였다[6]. 연령, 성별, 학력, 동거가족, 귀농·귀촌 연차, 귀농·귀촌 동기, 귀농·귀촌 경로, 귀농·귀촌전 직업, 귀농·귀촌지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 경제활동유형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업농과 비경제활동이 많고, 젊을수록 겸업농이나 비농업이 많았다<표 4>. 61세 이상에서 전업농 비중이 46.7%인데 비해, 40세 이하는 33.3%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61세 이상에서 25.9%인데 비해, 41~50세는 2.8%, 40세 이하는 9.5%였다.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유형을 보면, 대체로 남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하였고, 여성의 경우 비농업분야 경제활동참여가 농업(전업, 비농업)보다 활발한 편이었다.

6)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요인에 대한 탐색차원에서 카이스퀘어분석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0.1에서 판단하였다.

〈표 4〉 연령,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유형 분포

단위: 명(%)

변인		경제활동유형				전체	X^2 (df)
		전업농	겸업농	비농업	비경제		
연령	40세이하	28 (33.3)	31 (36.9)	17 (20.2)	8 (9.5)	84 (100.0)	87.194*** (9)
	41~50세	112 (39.3)	116 (40.7)	49 (17.2)	8 (2.8)	285 (100.0)	
	51~60세	202 (47.1)	122 (28.4)	50 (11.7)	55 (12.8)	429 (100.0)	
	61세이상	92 (46.7)	41 (20.8)	13 (6.6)	51 (25.9)	197 (100.0)	
성별	남	368 (45.5)	257 (31.8)	95 (11.8)	88 (10.9)	808 (100.0)	15.226** (3)
	여	67 (35.6)	53 (28.2)	34 (18.1)	34 (18.1)	188 (100.0)	
전체		437 (43.5)	314 (31.3)	131 (13.0)	122 (12.2)	1004 (100.0)	

** p<0.01, *** p<0.001

학력별로도 경제활동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비경제활동이 많았다<표 5>. 중졸이하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22.6%였지만 전문대졸은 7.1%, 대졸은 9.8%였다. 동거가족으로 배우자 동거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유형에 차이가 없었지만, 자녀동거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동거자는 경제활동 비율이 높고, 경제활동유형로는 전업농보다는 겸업농, 비농업분야 종사 비율이 높았다. 자녀동거의 경우 비경제활동비율이 8.3%로 자녀동거가 아닌 사람(14.7%)에 비해 낮았다. 전업농비율은 39.3%로 비동거자 46.3%보다 낮지만, 겸업농 비율은 35.8%, 비농업분야는 16.5%로 비동거자 28.3%, 10.7%보다 각각 높았다.

〈표 5〉 학력, 동거가족에 따른 경제활동유형 분포

단위: 명(%)

변인			경제활동유형				전체	X^2 (df)
			전업농	겸업농	비농업	비경제		
학력	중졸이하		28 (45.2)	18 (29.0)	2 (3.2)	14 (22.6)	62 (100.0)	21.541* (12)
	고졸		123 (44.1)	84 (30.1)	30 (10.8)	42 (15.1)	279 (100.0)	
	전문대졸		56 (44.1)	42 (33.1)	20 (15.7)	9 (7.1)	127 (100.0)	
	대졸		195 (44.2)	138 (31.3)	65 (14.7)	43 (9.8)	441 (100.0)	
	대학원졸		32 (38.1)	27 (32.1)	12 (14.3)	13 (15.5)	84 (100.0)	
동거가족	배우자	비동거	93 (39.1)	88 (37.0)	36 (15.1)	21 (8.8)	238 (100.0)	4.275 (3)
		동거	335 (43.7)	235 (30.7)	95 (12.4)	101 (13.2)	766 (100.0)	
	자녀동거	비동거	280 (46.3)	171 (28.3)	65 (10.7)	89 (14.7)	605 (100.0)	21.466*** (3)
		동거	157 (39.3)	143 (35.8)	66 (16.5)	33 (8.3)	399 (100.0)	
전체			437 (43.5)	314 (31.3)	131 (13.0)	122 (12.2)	1004 (100.0)	

*p<0.05, *** p<0.001

귀농·귀촌 연차가 높을수록 전업농이 많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적었다<표 6>. 2008년 이전 귀농·귀촌인 중에 비경제활동인구는 4.3%였지만, 2013~2014년 귀농·귀촌인은 14.7%였다. 귀농·귀촌 동기 아홉 사례별 분석 결과를 보면 실업,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농업종사, 은퇴후 여가, 전원생활, 생태공동체 추구, 새일자리를 찾아서 등의 귀농·귀촌 동기에 따라 경제활동유형별 참여정도 차이가 있었다. 도시에서의 실업 때문에 귀

농·귀촌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농업종사(전업농, 겸업농) 비율이 높고,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때문에 귀농·귀촌한 사람은 겸업농이나 비농업분야 종사가 많고, 은퇴후 여가나 전원생활 때문에 귀농·귀촌한 사람은 비경제활동이 많고, 생태공동체 가치 추구를 위해 귀농·귀촌한 사람은 비경제활동이 많고, 새일자리를 찾아 귀농·귀촌한 사람은 겸업이나 비농업분야 종사가 많았다.

귀농·귀촌 경로유형에 따른 경제활동유형을 보면 농촌출신 고향 귀농·귀촌인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높고, 경제활동유형별로는 농업(전업, 겸업) 종사가 많았다<표 7>. 농촌 출신 타 지역 귀농·귀촌인과 도시출신 귀농·귀촌인은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이 비율이 높고, 도시출신 귀농·귀촌인의 경우 다른 유형보다 비농업분야 종사비율이 높았다. 농촌출신 고향 귀농·귀촌인 중 전업농은 50.8%, 겸업농이 34.6%이고, 농촌출신 타지역 귀농·귀촌인의 비경제활동비율이 15.1% 였다. 도시출신 귀농·귀촌인은 전농업 비율이 39.7%, 비농업분야 종사율이 18.1%, 비경제활동 비율은 14.1%였다. 귀농·귀촌 준비기간에 따른 경제활동유형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는데, 대체로 준비기간이 있는 사람이 농업종사 비중이 높았지만, 또한 비경제활동 상태도 많았다.

〈표 6〉 귀농·귀촌 연도, 귀농·귀촌 동기에 따른 경제활동유형 분포

단위: 명(%)

변인		경제활동유형				전체	X^2 (df)
		전업농	겸업농	비농업	비경제		
귀농·귀촌 연도	2008년 이전	99 (47.6)	68 (32.7)	32 (15.4)	9 (4.3)	208 (100.0)	15.380 † (9)
	2009~2010년	82 (44.8)	59 (32.2)	20 (10.9)	22 (12.0)	183 (100.0)	
	2011~2012년	126 (45.3)	89 (32.0)	35 (12.6)	28 (10.1)	278 (100.0)	
	2013~2014년	104 (41.4)	75 (29.9)	35 (13.9)	37 (14.7)	251 (100.0)	
귀농·귀촌 동기	높은 생활비	30 (37.0)	24 (29.6)	13 (16.0)	14 (17.3)	81 (100.0)	3.447 (3)
	실업	50 (54.9)	31 (34.1)	6 (6.6)	4 (4.4)	91 (100.0)	11.396** (3)
	도시 생활 회의	94 (38.8)	84 (34.7)	41 (16.9)	23 (9.5)	242 (100.0)	8.355* (3)
	농업종사	106 (58.2)	51 (28.0)	12 (6.6)	13 (7.1)	182 (100.0)	23.499*** (3)
	건강상 이유	74 (40.0)	59 (31.9)	24 (13.0)	28 (15.1)	185 (100.0)	2.338 (3)
	은퇴후 여가	112 (44.6)	60 (23.9)	19 (7.6)	60 (23.9)	251 (100.0)	51.646*** (3)
	전원생활	132 (40.4)	91 (27.8)	43 (13.1)	61 (18.7)	327 (100.0)	19.834*** (3)
	생태공동체	74 (40.4)	63 (34.4)	32 (17.5)	14 (7.7)	183 (100.0)	8.311* (3)
	새일자리	92 (42.4)	78 (35.9)	33 (15.2)	14 (6.5)	217 (100.0)	10.402* (3)
전체		437 (43.5)	314 (31.3)	131 (13.0)	122 (12.2)	1004 (100.0)	

주) 귀농·귀촌 동기는 복수응답으로 조사된 결과로 각 동기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0)는 제시하지 않고, 응답한 경우(1)만 표에 제시함.

† p<0.1, * p<0.05, ** p<0.01, *** p<0.001

〈표 7〉 귀농·귀촌 경로, 준비기간에 따른 경제활동유형 분포

단위: 명(%)

변인		경제활동유형				전체	X^2 (df)
		전업농	겸업농	비농업	비경제		
귀농·귀촌 경로	농촌출신 → 고향	153 (50.8)	104 (34.6)	23 (7.6)	21 (7.0)	301 (100.0)	33.168*** (6)
	농촌출신 → 타지역	116 (40.7)	93 (32.6)	33 (11.6)	43 (15.1)	285 (100.0)	
	도시 출신	160 (39.7)	113 (28.0)	73 (18.1)	57 (14.1)	403 (100.0)	
준비기간	준비기간없음	39 (41.5)	32 (34.0)	13 (13.8)	10 (10.6)	94 (100.0)	12.026 (15)
	6개월 미만	67 (47.5)	41 (29.1)	21 (14.9)	12 (8.5)	141 (100.0)	
	6~1년미만	88 (41.1)	74 (34.6)	32 (15.0)	20 (9.3)	214 (100.0)	
	1~2년미만	91 (47.4)	56 (29.2)	22 (11.5)	23 (12.0)	192 (100.0)	
	2~3년미만	60 (43.2)	41 (29.5)	17 (12.2)	21 (15.1)	139 (100.0)	
	3년이상	89 (40.6)	69 (31.5)	26 (11.9)	35 (16.0)	219 (100.0)	
전체		437 (43.5)	314 (31.3)	131 (13.0)	122 (12.2)	1004 (100.0)	

*** $p<0.001$

귀농·귀촌전 직업에 따른 경제활동유형을 보면 전문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8>. 전문직군에서 전업농이 적었고, 비농업분야 종사 또는 비경제활동자가 많았다. 전문직의 경우 전업농이 28.8%로 전체(43.5%)에 비해 낮은 반면, 비농업분야는 각각 28.8%, 비경제활동자는 15.4%로 전체(13.0%, 12.2%)에 비해 높았다. 귀농·귀촌지 유형별로는 시·군청 소재지일수록 전업농이 적고, 비농업분야 종사자가

많고, 비경제활동자가 적었다. 시·군청 소재지 귀농·귀촌인의 비경제활동비율은 9.5%로 면소재지 14.9%, 원격지 14.0%보다 낮았다. 전업농 비율은 면소재지 귀농·귀촌 48.9%, 원격지 귀농·귀촌 48.3%로 시·군청 소재지 귀농·귀촌 29.1%보다 높았다.

〈표 8〉 귀농·귀촌전 직업, 귀농·귀촌지 유형에 따른 경제활동유형 분포

변인		경제활동유형				전체	$X2$ (df)
		전업농	겸업농	비농업	비경제		
귀농·귀촌 전 직업	행정·경영·관리자	52 (46.4)	29 (25.9)	17 (15.2)	14 (12.5)	112 (100.0)	1.863 (3)
	전문직	15 (28.8)	14 (26.9)	15 (28.8)	8 (15.4)	52 (100.0)	14.009** (3)
	사무직	82 (46.6)	51 (29.0)	20 (11.4)	23 (13.1)	176 (100.0)	1.432 (3)
	판매서비스직	35 (48.6)	23 (31.9)	9 (12.5)	5 (6.9)	72 (100.0)	2.220 (3)
	기능직	46 (43.8)	38 (36.2)	10 (9.5)	11 (10.5)	105 (100.0)	2.295 (3)
	자영업자	120 (45.1)	82 (30.8)	34 (12.8)	30 (11.3)	266 (100.0)	.479 (3)
귀농·귀촌지 유형	시군청 소재지	43 (29.1)	62 (41.9)	29 (19.6)	14 (9.5)	148 (100.0)	32.037*** (9)
	면소재지	92 (48.9)	44 (23.4)	24 (12.8)	28 (14.9)	188 (100.0)	
	소재지 인접	153 (42.7)	119 (33.2)	48 (13.4)	38 (10.6)	358 (100.0)	
	원격지	145 (48.3)	85 (28.3)	28 (9.3)	42 (14.0)	300 (100.0)	
전체		437 (43.5)	314 (31.3)	131 (13.0)	122 (12.2)	1004 (100.0)	

주) 귀농·귀촌전 직업의 경우 복수응답으로 조사된 결과로 각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0)는 제시하지 않고, 해당 경우(1)만 표에 제시함. 당초 예술가, 단순노동자, 군인 등도 조사되었으나 셀별 사례수가 적어(5 미만) 교차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 p<0.01, *** p<0.001

3. 경제활동 관련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관련요인간의 관계를 통제한 상황에서 각 변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독립적 영향 정도를 보기 위해 이항로짓모형(경제활동여부)과 다항로짓모형(경제활동유형)을 분석하였다[7]. 먼저 경제활동여부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이항로짓모형)결과는 표 9의 모형1과 같았다. 귀농·귀촌장소를 통제한 상황에서 귀농·귀촌인의 연령, 귀농·귀촌 연차, 성별, 귀농·귀촌 동기(은퇴후 여가, 전원생활), 귀농·귀촌 경로(고향 귀농·귀촌) 등의 변인이 경제활동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즉 상대적으로 젊고, 귀농·귀촌 연차가 높고, 여성보다는 남자가, 귀농·귀촌 동기로 은퇴 또는 전원생활을 이유로 귀농·귀촌하지 않은 경우일수록, 도시출생 귀농·귀촌보다는 고향으로 귀농·귀촌한 경우가 경제활동 참여가 더 활발하였다. 앞선 카이스퀘어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면, 학력, 귀농·귀촌전 직업, 귀농·귀촌지 유형 등의 경제활동여부와 관련성이 제거되었다.

구체적인 경제활동유형(전업농, 겸업농, 비농업분야)별 관련요인 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분석(모형2)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귀농·귀촌인의 전업농 종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 변인으로는 연령, 귀농·귀촌 연차, 성별, 귀농·귀촌 동기(높은 생활비,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은퇴후 여가, 전원생활), 귀농·귀촌 경로(고향 귀농·귀촌) 등이 있었다. 겸업농 관련 변인으로는 연령, 귀농·귀촌 연차, 성별 외에 귀농·귀촌 동기(은퇴후 여가, 전원생활), 귀농·귀촌 동기(고향 귀농·귀촌)이 있었다. 비농업분야 경제활동 관련 변인으로는 연령, 귀농·귀촌 연차, 귀농·귀촌 동기(농업종사,

7) 로짓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미성은 0.05수준에서 판단하였다.

건강상이유, 은퇴후 여가, 전원생활), 귀농·귀촌전 직업(관리자, 전문직, 자영업자), 귀농·귀촌지 유형(원격지) 등이 있었다. 경제활동여부에 대한 이항로짓모형과는 다르게 다항로짓모형에서는 귀농·귀촌전 직업과 귀농·귀촌지 유형의 경제활동유형에 대한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경제활동유형별로는 비경제활동인에 비해 전업농은 상대적으로 젊고, 귀농·귀촌 연차가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귀농·귀촌 동기가 도시 생활 회피나 전원생활 향유가 아닌 사람들이, 그리고 농촌 출신으로 고향으로 귀농·귀촌한 사람이 많았다. 겸업농은 전업농과 같이 젊고, 귀농·귀촌 연차가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귀농·귀촌 동기가 은퇴후 여가나 전원생활이 아닌 사람이 많았고, 도시출신 귀농·귀촌인보다 농촌출신 고향 귀농·귀촌인이 많았다. 비농업분야 경제활동은 젊고, 귀농·귀촌 연차가 높을수록, 귀농·귀촌 동기가 농업종사나, 은퇴후 여가나 전원생활 등이 아닐수록, 귀농·귀촌전 직업이 관리자, 전문직, 자영업자가 그리고 귀농·귀촌지 유형이 원격지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표 9〉 경제활동유형별 관련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변인		모형1			모형2								
		경제활동여부			전업농			겸업농			비농업		
		b	SE	유의도	b	SE	유의도	b	SE	유의도	b	SE	유의도
통제변인: 귀농·귀촌 장소	강원	.19	.59	.74	.32	.64	.61	.08	.65	.89	.23	.73	.75
	충북	-.21	.44	.63	-.13	.49	.79	-.37	.50	.46	-.00	.58	.99
	충남	.86	.50	.09	1.24	.54	.02	.67	.55	.22	.22	.64	.72
	전북	-.12	.46	.79	.07	.50	.87	-.20	.51	.68	-.57	.58	.32
	전남	.82	.52	.11	1.08	.56	.05	.77	.56	.17	.26	.65	.68
	경북	.68	.41	.09	1.12	.44	.01	.26	.45	.55	.06	.52	.90
	경남	.34	.47	.46	.56	.51	.26	.24	.51	.64	-.05	.61	.93
연령(세)		-.09	.01	.00	-.08	.02	.00	-.11	.02	.00	-.12	.02	.00
학력(교육연수)		.10	.05	.05	.10	.05	.05	.09	.05	.09	.09	.07	.18
귀농·귀촌 연차(년)		-.15	.04	.00	-.15	.04	.00	-.16	.04	.00	-.15	.05	.00

성별	여	-.88	.30	.00	-1.09	.33	.00	-.94	.34	.00	-.23	.38	.53
가족 동거자	배우자동거	-.21	.30	.47	-.01	.32	.97	-.34	.33	.30	-.48	.38	.20
	자녀동거	-.18	.28	.51	-.34	.30	.25	-.03	.30	.90	.05	.36	.87
귀농·귀촌 동기	높은생활비	-.76	.48	.12	-.85	.51	.09	-.74	.53	.16	-.41	.59	.48
	실업	.53	.63	.40	.90	.65	.16	.58	.67	.38	-.83	.81	.30
	도시 회의	-.69	.42	.10	-.77	.44	.08	-.56	.45	.21	-.65	.49	.19
	농업종사	-.15	.46	.73	.25	.47	.59	-.45	.49	.35	-1.31	.58	.02
	건강상 이유	-.63	.40	.12	-.60	.42	.15	-.53	.43	.22	-.83	.49	.09
	은퇴후 여가	-1.13	.37	.00	-.97	.39	.01	-1.13	.41	.00	-1.63	.48	.00
	전원생활	-.85	.37	.02	-.86	.38	.02	-.79	.40	.04	-.89	.44	.04
	생태공동체	-.54	.47	.24	-.48	.48	.31	-.63	.49	.20	-.49	.54	.35
	새일자리	-.00	.45	.98	-.01	.46	.97	.01	.48	.97	.08	.52	.87
귀농·귀촌 유형	고향 귀농·귀촌	.73	.32	.02	.90	.33	.00	.76	.35	.02	-.11	.41	.78
	타지역 귀농·귀촌	.19	.26	.46	.13	.28	.62	.36	.29	.21	-.00	.34	.99
귀농·귀촌 준비 기간	6개월 미만	.39	.55	.48	.45	.57	.43	.26	.59	.65	.38	.67	.57
	6~1년 미만	.03	.50	.94	-.08	.53	.87	.17	.54	.74	.07	.61	.90
	1~2년 미만	.06	.51	.90	.08	.53	.88	.06	.55	.90	-.11	.64	.86
	2~3년 미만	.10	.51	.84	.11	.54	.84	.17	.56	.75	.06	.65	.92
	3년 이상	.00	.48	.99	-.11	.51	.82	.16	.52	.75	-.00	.61	.99
귀농·귀촌전 직업	관리자	-.03	.46	.94	-.28	.48	.56	-.22	.51	.66	1.15	.62	.06
	전문직	-.22	.56	.68	-.99	.62	.11	-.17	.63	.77	1.82	.71	.01
	사무직	-.35	.40	.38	-.45	.42	.28	-.48	.44	.28	.14	.55	.79
	판매서비스직	.18	.61	.76	.12	.63	.84	.08	.65	.89	.79	.75	.29
	기능직	.11	.48	.80	-.17	.50	.72	.26	.52	.62	.81	.66	.22
	자영업자	.27	.37	.45	.04	.39	.91	.22	.41	.59	1.24	.51	.01
귀농·귀촌지 유형	면소재지	-.42	.41	.30	.04	.44	.92	-.84	.45	.06	-.77	.51	.12
	소재지 인접	-.12	.39	.74	.30	.42	.46	-.26	.41	.52	-.68	.46	.14
	원격	-.41	.39	.29	.11	.42	.79	-.68	.42	.10	-1.27	.49	.00
상수항		321.3	89.20	.00	298.2	91.34	.00	339.5	93.69	.00	317.1	104.9	.00
-2log 우도		549.68			2015.081								
모형적합도		159.34***			353.034***								
Nagelkerke R^2		0.294			0.338								

주) 귀농·귀촌전 직업으로 당초 예술가, 단순노동자, 군인 등도 있었지만 경제활동유형별 사례가 충분치 않아(교차표에서 사례수 5이하) 로짓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 $p<0.001$

경제활동자중에 누가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구명하기 위해 농업종사 여부 관련 요인 분석(모형 1, 이항로짓모형)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농업종사유형 관련 요인 분석(모형2,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농업종사여부 관련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귀농·귀촌 동기(실업, 농업종사, 은퇴후 여가), 귀농·귀촌 경로(농촌출신 고향 귀농·귀촌), 귀농·귀촌전 직업(관리직, 전문직, 자영업), 귀농·귀촌지 유형(소재지 인접지역, 원격지) 등이 있었다. 연령대가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귀농·귀촌 동기가 도시 실업이거나 농업종사인 경우 또는 은퇴후 여가인 경우, 농촌출신 고향 귀농·귀촌인, 관리직·전문직·자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농업에 종사를 많이 하였다. 경제활동종사 관련요인과 비교할 때 학력, 귀농·귀촌 연차의 관련성이 제거되었고, 귀농·귀촌 동기로 실업, 농업종사 요인이 새로 관련성이 발견되었으며, 전원생활 요인의 관련성이 제거되었다. 귀농·귀촌전 직업으로 관리직, 전문직, 자영업자군과의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농업종사유형별로 관련요인의 일부 차이가 있는데, 성별, 귀농·귀촌 동기(실업, 농업종사), 귀농·귀촌 경로(농촌출신 고향 귀농·귀촌), 귀농·귀촌전 직업(관리직, 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요인에 따라 전업, 겸업 종사 경향성이 동일하게 높아지지만, 연령, 귀농·귀촌지 유형(소재지인접지, 원격지) 등에 따라서는 달랐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요 소재지에서 먼거리에 거주할수록 전업농이 많았다.

〈표 10〉 농업종사유형별 관련요인 로짓분석

변인		모형1 농업종사여부			모형2					
					전업농			겸업농		
		b	SE	유의도	b	SE	유의도	b	SE	유의도
통제변인: 귀농·귀촌	강원	.072	.524	.891	.178	.584	.761	-.075	.561	.893

장소	충북	-.115	.472	.807	-.025	.518	.961	-.227	.510	.656
	충남	.803	.460	.081	1.056	.501	.035	.483	.493	.327
	전북	.556	.433	.199	.655	.480	.172	.422	.459	.358
	전남	.661	.457	.148	.766	.500	.126	.507	.483	.293
	경북	.675	.398	.090	1.051	.437	.016	.232	.430	.590
	경남	.425	.482	.378	.565	.527	.284	.295	.514	.566
연령(세)		.03	.01	.04	.05	.01	.00	.016	.017	.337
학력(교육연수)		.017	.057	.769	.022	.060	.718	.014	.061	.824
귀농·귀촌 연차(년)		-.007	.032	.837	.000	.034	.990	-.012	.034	.717
성별	여	-.70	.29	.01	-.75	.31	.01	-.64	.31	.03
가족 동거자	배우자동거	.345	.284	.224	.525	.305	.085	.163	.304	.593
	자녀동거	-.233	.265	.380	-.398	.284	.161	-.071	.283	.801
귀농·귀촌 동기	높은 생활비	-.391	.415	.347	-.484	.449	.281	-.354	.451	.432
	실업	1.57	.54	.00	1.74	.57	.00	1.42	.57	.01
	도시 생활 회의	-.044	.311	.888	-.162	.338	.632	.078	.331	.813
	농업종사	1.21	.39	.00	1.52	.41	.00	.84	.42	.04
	건강상 이유	.248	.334	.459	.217	.360	.546	.299	.358	.403
	은퇴후 여가	.626	.359	.081	.711	.380	.061	.533	.386	.167
	전원생활	.032	.298	.915	-.015	.320	.963	.075	.320	.814
	생태공동체	-.042	.330	.899	.027	.358	.940	-.111	.356	.755
	새일자리	-.087	.319	.786	-.109	.345	.752	-.062	.341	.855
귀농·귀촌 경로	고향 귀농·귀촌	.96	.29	.00	1.04	.31	.00	.88	.31	.00
	타지역 귀농·귀촌	.205	.268	.444	.087	.288	.761	.346	.288	.229
귀농·귀촌 준비 기간	6개월 미만	-.081	.457	.859	.027	.491	.956	-.146	.489	.765
	6~1년 미만	-.033	.432	.938	-.142	.468	.761	.115	.457	.801
	1~2년 미만	.168	.457	.713	.197	.491	.689	.165	.485	.733
	2~3년 미만	.057	.477	.905	.050	.513	.923	.094	.507	.853
	3년 이상	.028	.449	.950	-.080	.485	.869	.166	.476	.727
귀농·귀촌 전 직업	관리자	-1.37	.47	.00	-1.42	.50	.00	-1.37	.50	.00
	전문직	-2.37	.53	.00	-2.81	.59	.00	-1.94	.56	.00
	사무직	-.521	.433	.230	-.493	.458	.282	-.562	.459	.221
	판매서비스직	-.629	.515	.222	-.609	.544	.263	-.651	.552	.238
	기능직	-.691	.508	.174	-.932	.537	.083	-.487	.533	.361
	자영업자	-1.06	.40	.00	-1.13	.42	.00	-.99	.42	.02
귀농·귀촌지	면소재지	.235	.365	.519	.687	.399	.085	-.165	.392	.673

유형	소재지 인접	.62	.31	.04	.97	.34	.00	.395	.327	.227
	원격지	.88	.35	.01	1.33	.38	.00	.542	.369	.142
상수항		12.257	64.179	.849	-12.945	68.910	.851	17.790	68.487	.795
-2log 우도		589.847			1467.080					
모형적합도		100.535***			192.012***					
Nagelkerke R^2		0.202			0.238					

주) 귀농·귀촌전 직업으로 당초 예술가, 단순노동자, 군인 등도 있었지만 경제활동유형별 사례가 충분치 않아(교차표에서 사례수 5이하) 로짓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 $p<0.001$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경제활동참여 요인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이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지, 겸업으로 종사하는지, 아니면 비농업분야에만 종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유형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젊은 귀농·귀촌인일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고, 이들은 특히 비농업분야 참여가 두드러졌다. 귀농·귀촌 관련 선행연구(유학열, 2011) 뿐 아니라 중고령자 경제활동 연구(송일호·박명호, 2012; 성지미·안주엽, 2006; 엄동욱, 2008)에서 보면 연령은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결국 이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건강과 연령의 높은 관련성을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의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제약요인 분석결과를 보면 61세 이상 고령자중 33.7%가 신체적 한계를 들고 있었다. 한편 젊은 귀농·귀촌인의 비농업분야 종사가 많은 것은 자녀 양육 등에 따른 소득 활동 욕구가 높은데 비해 농업에 전

업적으로 종사해서는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박시현·최용욱, 2014; 유학열, 2011).

둘째,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이 높고, 농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마상진·김정섭·권인혜, 2011) 귀농·귀촌인의 경우도 경제활동유형이나 농업종사유형에 관계없이 남성의 참여율이 높았다. 일부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남성보다 활발하다는 선행 연구(엄동욱, 2008)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정 내 여성의 성역할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낮기 마련인데, 이 연구에서도 여성 귀농·귀촌인이 남성보다 경제활동참여가 전반적으로 저조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비농업분야 참여가 활발하였는데, 이는 김정섭(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 그리고 농촌의 교육·복지 서비스 등에 있어 귀농·귀촌 여성의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일부 시사한다.

셋째,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은 귀농·귀촌 연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귀농·귀촌인들은 귀농·귀촌 연차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였는데, 이는 점차 농촌을 알아가고 인적 네크워크도 형성해가면서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를 접하게 되고, 자신의 전직업이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카이스퀘어분석 결과 귀농·귀촌 연차에 따라 농업 종사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성이 보이긴 했지만, 실제 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귀농·귀촌 연차가 높아지면서 농업에 더 종사하게 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은 귀농·귀촌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귀농·귀촌 관련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탐색된 요인이 귀농·귀촌 동기

였는데, 귀농·귀촌 동기는 실제 경제활동여부와 경제활동유형에 관련성이 있었다. 은퇴후 여가 또는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경제활동참여가 적었다. 이는 은퇴후 여가, 전원생활이 동기인 귀농·귀촌인은 대다수가 50대 이후로 자녀 교육 부담이 적고, 연금 등 이전 소득으로 인한 가구 소득이 어느 정도 확보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마상진 외, 2014). 한편 농업종사유형별로 비농업종사활동자에 비해 실업 때문에 귀농·귀촌한 사람의 경우 농업종사를 많이 하였는데, 실업자들에게 대한 귀농·귀촌 정책이 영농인력 확보 차원에서 효과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은 귀농·귀촌 경로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촌출신 고향 귀농·귀촌인(U턴)이 농촌출신 타지역 귀농·귀촌인(J턴) 또는 도시출신 귀농·귀촌인(I턴)보다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하였다. 마상진·정기환(2008)의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을 포함한 신규 취농자의 영농성과에 있어 사회 네트워크 요인이 자본, 전문성, 시장 관련 요인에 선행하여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의 자료에는 부모님의 영농여부가 조사되지 않아 귀농·귀촌인의 영농승계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농촌출신 고향 귀농·귀촌인의 경우 상당수가 부모님의 영농을 승계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고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도 두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역으로 도시출신 귀농·귀촌인이나 농촌출신이라도 타지역 귀농·귀촌인는 주로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농지가 없고, 관련 인맥의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유형은 귀농·귀촌전 직업에 따라 차

이가 있다. 경제활동여부와 귀농·귀촌전 직업의 관련성은 없었지만, 경제활동유형별로는 특정 직업군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은퇴이후 직업은 은퇴전 직업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중·고령자 취업 관련 선행연구(박경숙, 2003; 유현정, 2007)의 결론으로, 이 연구에서도 전직업에 따라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유형이 달랐다. 관리직, 전문직, 자영업군의 경우 비농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였다. 하지만 농업종사와 관련성이 있는 직업군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일곱째,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유형은 귀농·귀촌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군청 또는 읍·면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은 비농업분야나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겸업농을 하는 경향이 있고, 전업농은 주로 소재지와 떨어진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 이는 원격지의 농지의 구입 편이성, 주요 소재지의 비농업분야 경제활동 기회 접근성 등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사료된다.

여덟째,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은 학력, 귀농·귀촌 준비기간, 동거가족에 따라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으면 취업기회가 많아지고,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하지만, 일부 중고령자 관련연구(성지미·안주엽, 2006)에서는 청년층과 달리 중고령자가 되면 교육연한이 긴 경우 취업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연금과 같은 이전 소득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 데,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높으면 취업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엄동욱,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의 경우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에 차이가 없었다. 귀농·귀촌인 다수가 고졸이상으로, 농업 또는 농촌 지역에서의 직업들이 그 이상의 학력에 따라 차별성을 가지는 직업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엄동욱, 2008; 송일호·박명호 2012; 성지미·안주엽 2006)에서 동거

가족이 취업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지만, 귀농·귀촌인의 경우 동거가족 여부가 경제활동여부 또는 유형과 관련성이 없었다. 귀농·귀촌인 연령대별 차별화된 분석, 동거 가족의 구체적 유형(영유아, 청소년, 성인)별 차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을 포함한 직업준비기간이 길면 취업가능성이 높기 마련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경제활동여부와 관련성이 없었다. 유학열(2011)도 준비기간에 따라 귀농·귀촌유형이 달라짐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유형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개개인별로 생각하는 귀농·귀촌 준비의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그 준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최근 전반적으로 준비없이 귀농·귀촌하는 경향이 줄고 있는 데에서도(마상진 외, 2015)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겠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에 혁신적 인적자본으로서 귀농·귀촌인의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제한된 변인을 가지고 그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일부 귀농·귀촌인 관련 변인이 추가되고, 변인 측정의 구체성이 보완·분석될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인의 직업경험이 경제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바, 귀농·귀촌전 직업의 기술수준과 월급수준, 그리고 구체적인 자격증 보유 등의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귀농·귀촌 준비 내용과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고령자 취업관련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강 요인이 보완되고,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귀농·귀촌가구의 경제요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전소득 부문, 가구 자산과 부채, 그리고 평균적인 지출 규모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귀농·귀촌 장소의 경제적 특성(산업구조,

경제활동참여율 등)이 지역변인으로 통제되고, 종속변인으로 경제활동 여부나 경제활동유형과 더불어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의 구체적인 내용(노동시간, 노동난이도, 만족도)도 분석이 될 필요가 있다.

[2015년 5월 25일: 접수/ 2015년 6월 18일: 수정/ 2015년 6월 21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강대구. 2006.『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농림부.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59-98.

김경덕·홍준표·임지은. 2012.『귀농·귀촌 사회적 편익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학·서정원. 2014. “산촌마을 귀농·귀촌인 정착 동기와 생활만족 요인 분석”,『농촌계획』20(1): 105-113.

김정섭·성주인·마상진. 2012.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 13호』.

김정섭. 2014. “귀농인의 사회·경제 활동과 함의”,『농촌지도와 개발』21(3): 53-89.

김철규·이해진·김기홍·박민수. 2011.『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축산경영학회지』14(1): 205-223.

농림수산식품부. 2009.『2009년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지침』.

농림수산식품부. 2011.『귀농·귀촌실태』.

마상진·정기환. 2008.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김정섭·권인혜. 2011.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방과후학교 정책 /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2012. “귀농·귀촌자의 영농실태와 교육요구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농·귀촌 정책 연구포럼(2차 세미나)』.

마상진·박대식·박시현·최용욱·남기천·남승희·최윤지. 2015. “귀농·귀촌 시기별 귀농·귀촌 과정 및 경제·지역사회활동 실태 변화 분석”,『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출판 예정).

박경숙. 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 은퇴의 유형화에 대함 함의”,『노동정책연구』3(1): 103-140.

박공주·윤순덕·강경하.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농촌계획』12(4): 63-76.

박공주·김양희·박정윤. 2007.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농촌 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45(1): 9-21.

박시현·최용욱. 2014.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지미·안주엽. 2006.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노동정책연구』6(1): 39-74.
송인하. 2013.『생태가치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경제목적 귀농인과의 비교』, 전북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송일호·박명호. 2012.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비교분석”,『사회과학연구』19(2): 7-26.
신윤철·배성의·김동섭·윤준상. 1998. “귀농자의 귀농동기 및 배경특성 분석”, 『공주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6: 59-70.
엄동욱. 2008.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노동정책연구』8(3): 17-38.
유학열. 2011.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열린충남』54: 18-25.
유현정. 2007.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생활과학연구논총』10(2): 199-213.
조록환. 1998. “귀농자의 생활실태 분석”,『도시와 빈곤』34: 42-47.
지은정. 2008.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연구: 노후빈복노동가설 및 숙련편향 기술진보설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60(3): 31-58.
통계청. 2010. 『농업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2014)』.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 2012. 2. 21. “앞서가는 농촌 마을에는 귀농·귀촌 리더 있다

Abstract

Urban-to-Rural Migrants' Types of Economic Activity and Their Related Variables

Ma, Sang-jin · Nam, Ki-cho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urban-to-rural migrants' types of economic activity and to identify their related variabl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s urban-to-rural migrant survey(2014), using binominal and multinominal logit model. As a result, this study made following conclusions: younger urban-to-rural migrants have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specially non-farming work; male migrants are more active economic participants, and tend to participate in farming, whereas female migrants in non-farming; urban-to-rural migrating motive explains the types of economic activity, particularly migrants for unemployment in city tend to engage in farming; migrants who returned to hometown engage in farming; ex-job of migrants accounts for the types of economic activity; education year, migration preparation period, and cohabiting family including spouse and children do not have relationship with the economic activity types of migrants. Lastly, this study made a recommendation for the future study, dealing with more delicate ex-job and migration preparation-related variables, and additional economic variables.

Key words: Urban-to-Rural Migrant, Types of Economic Activity, Full-time Farming, Part-time Farming

마상진은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재직중이다. 주 연구분야는 ‘ 농업인력육성’, ‘농촌교육’이고, 주요 저서로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방안” 등 이 있다.
E-mail: msj@krei.re.kr

남기천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역개발(석사)을 전공했으며,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중으로 주 연구분야는 ‘지역개발’이다. 주요 저서로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이 있다.
E-mail: nkc1108@krei.re.kr